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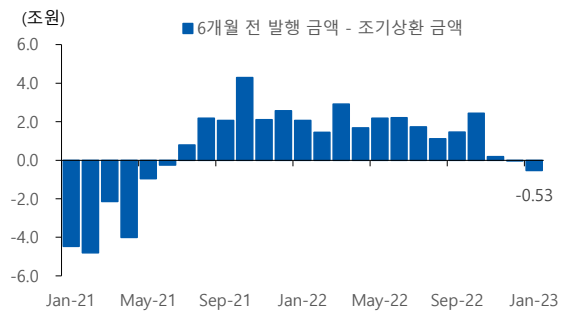


ELS시장 재고 정리 진행 중

1.1월 ELS 조기상환 초과 달성

- 23년 1월 상환은 1.76조원으로 전월대비 2,800억원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된 모습.
- 1월중 1차 조기상환 대상이 되는 작년 7월 발행 물량이 1.15조원에 불과했는데, 대부분 상환되고 추가로 5,300억원 조기상환 성공.
- 이는 작년 7월 중 발행 기준가 자체가 낮았고, 23년 1월 중 주요 글로벌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.

조기상환 증가로 6개월 전 발행금액보다 5,300억원 추가 상환. 1차 조기상환 실패 종목의 조기 상환 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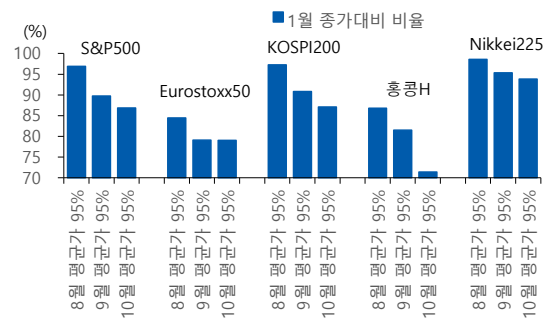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상반기 중 양호할 조기 상환 여건

- 주식형과 혼합형 중 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 금액이 570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그래도 1월 발행 금액 중 95%는 지수형임. 8월 중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였지만 8월 평균가의 95% 수준은 1월말보다 낮음.
- 1월과 3월은 작년 9, 10월 주가 부진으로 기준가가 더 낮아 상반기 중 조기상환 여건은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전망.

ELS 주요 기초자산 지수의 1월 말 지수 대비 8, 9, 10월 평균 지수의 95% 수준 비율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1월 ELS 조기 상환 초과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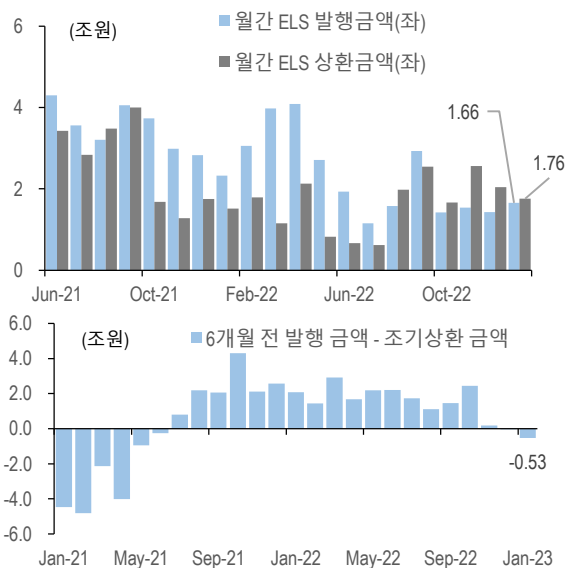
23년 1월 ELS 발행은 1.66조원으로 전월 대비 2,300억원 증가했고, 상환은 1.76조원으로 전월 대비 2,800억원 감소했다. 상환이 줄었지만 질적으로 12월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.

1월에 1차 조기상환 대상이 되는 작년 7월 발행 금액이 1.15조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략 1차 조기상환 물량이 대부분 조기 상환에 성공하고 2차 이상의 조기 상환 대상이 되었던 물량 중 5,300억원 가량이 조기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[차트1]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2월에 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전 발행 금액보다 조기 상환 금액이 많았는데 초과 조기 상환 금액은 400억원에 그쳤지만 1월에는 그 금액이 5,300억원으로 증가해 이전에 조기 상환에 실패했던 ELS 재고 정리가 진행되는 모양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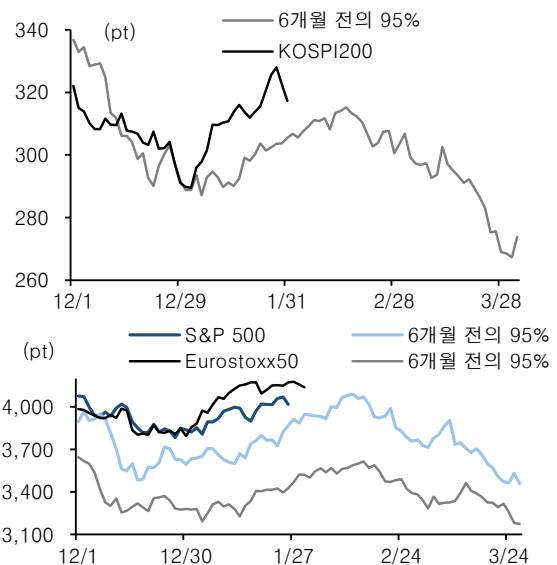
이는 작년 6월 급락 후 7월에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상승해 기준가 자체가 낮았고, 1월 중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6개월 전 지수의 95% 수준을 대부분 상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.

[차트1] 조기상환 증가로 6개월 전 발행금액보다 5,300억원 추가 상환. 1차 조기상환 실패 종목의 조기 상환 진행 중


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올해 1월 중 대부분 지수형 ELS 기초자산 가격은 6개월 전 주가의 95% 수준 상회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상반기 중 양호할 조기상환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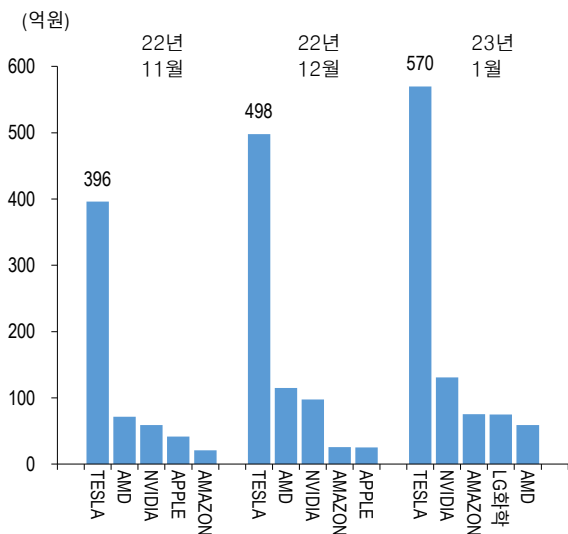
2022년 주식형 중 가장 발행 규모가 컸던 종목은 TESLA로 9,180억원 발행되었지만 TESLA 주가가 급락하면서 2022년 중 45%가 knock-in되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중 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은 570억원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.

이는 1월 초 10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던 동사의 주가가 1월 말에는 173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, 역사적 고점의 1/4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라 가격 메리트가 그 만큼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.

그래도 지수형 ELS 발행 비중이 1월에도 95%를 기록해 여전히 ELS 조기 상환 여부는 S&P500지수 등 주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. [차트4]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지수의 1월 말 증가보다 8월 평균지수의 95% 수준은 모두 낮은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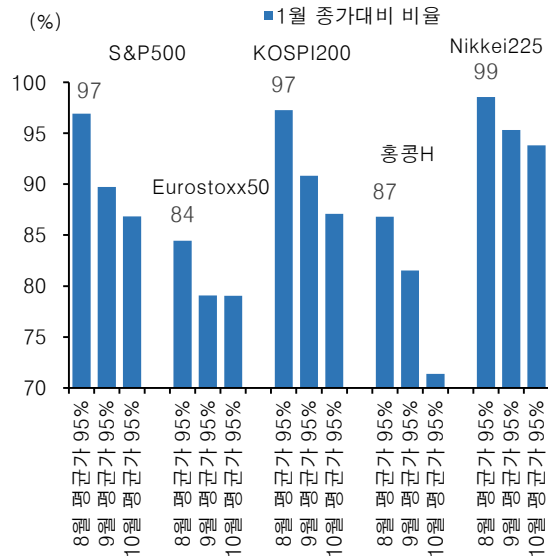
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으면 2월 중에도 조기상환 여건은 양호하고, 3월과 4월이 되면 작년 9, 10월의 주가 수준이 낮아 조기상환에 더욱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. 따라서 ELS 시장의 재고 정리는 당분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.

[차트3] 최근 3개월간 ELS 발행 기초자산 중 개별 주식 관련 ELS 발행 상위 종목 추이. 테슬라 강세 지속


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ELS 주요 기초자산 지수의 1월 말 지수 대비 8, 9, 10월 평균 지수의 95% 수준 비율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